

朝鮮時代 전통마을의 棲息觀에 관한 研究

- 沖齋 權撥의 宗家를 중심으로 -

崔 杞 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축·도시·조경학부

A study on a habitat view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s

- in the case of *Chung Jae Kwon Bul* family -

Choi, Key-Soo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According to Korean's geographical features of *Taek Li Ji*, the best location for human settlements is on the vicinity of a stream among a stream, an river and a sea, and not far from a ridge. The researcher chose one of best village which is called *Yougokmaeul*(酉谷 village) in *Bonghwa-gun, Kyungsang-do*(慶尙北道 奉化郡 奉化邑 酉谷里). This village was created a gathering village with the same surname, can be translated as the valley shaping a fowl in Korea, because the rear mountain of the village can be seen as a hen and the front mountain can be seen as a rooster in the view of the shape of geographical features. As it were, the shape of this village and the cultivated land seems to be an egg inside a nest of a parent's chicken(金鷄抱卵形) in the respect of the analogy of the theory of *P'ungsuchiri*(風水地理) which is known as *Feng Shui* in China and geomancy in the western world, and to effect the defensive psychology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terrain inland. This village is composed of *Samgaesuewon*(三溪書院) as the enshrinemental place for the first incoming person and the studying place, *Suckchunjungsa*(石泉精舍) as the lecturing and studying place for their following students within the *Chunghadonchun*(靑霞洞天), the studying *Yougok* village, and even the ritual place performing ancestral sacrifices(齋室) and the first incoming ancestor's graves in the same geographical system.

The house site of the first incoming resident(冲齋 宗宅) is surrounded the mountain and is located in the front of *Backsulryoung*(白雪嶺) which is the main mountain(主山) through *Moonsu-san*(文殊山) in the branch mountain of Korean' mountain system. *Backsulryoung* which is to be seen as the white peak, is symbolized the head of a hen which is to relate to a mysterious turtle in the view of *P'ungsuchiri*. And the pavilion which is called *Chungamjung*(靑巖亭) is sited on the rock of a shape of turtle which is symbolized to live longer.

In the section of the mountain and water, *Lee Jung Hwan*(李重煥) mentioned a living place near the mountain stream is the best residential area and a landscape which is composed by a stream between mountains make a pleasure spirit and a bright feeling and make a refined person. If one can reach in the graceful mountain half day away, this kind of place must be a best living residential area to live. But this village was structured all in one place. And one of the ideas tangibly reflected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s view of life and nature is the seclusion based on the Taoism. This kind of a dreamy thoughts make a dream to keep the paradise in our ancestors' mind. This kind of utopia is *Chunghadonchun* which is structured 5 aspects from the utopian gate near the *Samgaesuewon* to the village. These 5 aspects is expressed by some Confucian thoughts as a small cosmos individually. On the third aspects which is the center among these aspects, the *Suckchunjungsa* which was made a seclusion place to devoting himself to his studies with refined tastes. The word of *Jiju-am*(砥柱巖), *Gangpung-dae*(光風臺), *Jaewol-dae*(霽月臺) and *Biryoung-pock*(飛龍暴) are all expressed to cultivate one's moral character and to seek the truth by the Confucius' theory through the nature.

Key Words : human settlements, *P'ungsuchiri*, analogy, confucian thoughts, utopia

1. 序論

한국의 전통마을은 일반적으로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서 陽明한 기운을 받아 자리를 잡으면서 背山臨水의 공간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우리나라의 지세를 고려하여 주거지 조성 및 경작물 재배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였으며¹⁾, 그곳에 定住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卜居觀에 따라 입지를 택해 정주 터를 잡고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도록 마을을 구성하였으며, 또 그들의 小宇宙觀에 따라 생활영역을 형성하는 테두리를 만들고, 여유가 있으면 반나절 되는 거리에 자연과 벗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문을 연마하는 장소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또 이웃과 通婚圈을 유지하거나, 자식들에게 分財²⁾라는 형식으로 토지를 확보해감에 따라 영역을 넓혀갔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도록 삶의 터를 넓혀 나갔다. 이러한 자연에의 이용 내지는 자연에 대한 의식 표출이 우리의 전통의 住居文化로서 전해오고 있다.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사유에 따른 양식적 패턴일 수 있으며, 특히 전통마을의 연구에서 보려는 문화란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생활능력, 즉 인간의 定住行爲를 말한다. 인간의 삶의 장소 마련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생활기술 제도나 법률을 마련하면서 사회집단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운영능력,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인간

1) 李重煥은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編에서, 그는 우리 나라 지세를 언급하면서 시냇가에 사는 것이 평온한 아름다움과 시원스러운 운치가 있고, 또 관개와 경농하는 이 함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연구대상의 동족마을에 대해 고을 북쪽에 있는 내성촌은 곧 二相(조선시대 의정부의 좌찬성과 우찬성. 종 1품의 벼슬) 權穢이 살던 옛터로서 청암정이 있다. 정자는 큰 돌 위에 있어 섬과 같으며 사방은 냇물이 고리처럼 둘러서 제법 아늑한 경치가 있다. (李重煥, 1987, p.252-254)

2) 재산을 相續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양반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산상속 문서인 分財記가 傳해오고 있다.

2. 同族마을의 形成과 棲息觀

14세기말 왕조 교체기에 士族과 吏族의 분화는 더욱 심해서 같은 士族出身이면서, 한쪽은 上京從仕하여 在京官人이 되고 다른 쪽은 在地士族과 吏族으로 구분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양반과 중인이라는 신분계층이 생겼다. 따라서 士族은 학문과 벼슬인 官을, 吏族은 행정실무인 「吏事」를 담당하는 소관직무까지 구분되었다. 이러한 사족과 이족의 분화는 그들의 주거지까지 구분하게 되었다.⁷⁾ 하나의 마을은 地緣의 촌락공동체로서의 「土」와 혈연적 공동체로서 「姓」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토성」으로서 신라말 이래 조선초기까지 역사의 지배세력을 산출시키는 공급원의 역할을 하였다. 즉 郡縣土姓에서 上京從仕하면 중앙의 귀족과 관료가 되었고, 그대로 토착하면 그 在地邑의 戶長, 副戶長등 鄉里世界를 형성해 갔다.⁸⁾

조선의 15-17세기는 재지양반층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동족마을이 형성되어온 시기였다. 지방 양반들의 名簿인 鄉案⁹⁾은 읍을 단위로 작성되어 읍별로 재지양반 집단의 결집단위로 기능하였는데, 또 혼인과 학연에 의한 결합은 읍을 넘어 재지양반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재지양반층은 지방의 지배세력으로 지위를 확립해갔고, 각 양반 가문의 勢居地는 그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입향조가 입거하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살게 됨에 따라 그곳이 일족의 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세거지는 동족인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는 同族 集落, 즉 地緣의 촌락공동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재지양반층의 형성과정은 동시에 동

족 집락¹⁰⁾의 형성이기도 하였다.

조선조의 유학은 15세기 도학사상의 실천화 단계를 거쳐 16세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성리학으로서의 독자적 이론을 창출하는 원숙한 경지에 들어섰다. 유학은 修己治人의 학문으로, 개인의 인격을 함양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그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축을 이룬다. 그러므로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퇴계학파가 성립된 이후, 안동지방의 특징은 한결같이 정계에 나서기를 꺼리고¹¹⁾ 山林에 은둔하여 內省과 德行에 힘쓴 선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한결같이 정계에 진출하여 유교의 이념을 제시하기보다는 鄉里에 은거하여 山林處士로서 道學의 실천에만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경제적 기반이 확립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했는데, 14세기이래 신흥사족을 많이 배출시킨 영남지방은 일찍이 주자학에 訓導된 인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의 사대부층은 對農民施策과 對鄉村施策에 있어서도 「言必稱朱子」라 하여 그의 사상과 시책을 모범으로 하려고 했다. 주자가 내외관직을 역임하면서 임금에게 올린 「奏議」와 지방관 재임시 발표했던 勸農文·公移·社倉事目 등은 바로 宋代 사대부가 지향하려는 이상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地主 대 佃戶의 원만한 관계하에서 사대부의 향촌지배체제를 안정시키려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¹²⁾

마을의 입지를 정하거나 입향조들이 그들의 주택 입지를 잡을 때에는 예로부터 陰宅에서 중요시한 묘지풍수만큼 吉凶禍福을 얻으려는 의도보다 왕성하지는 않았지만, 음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락의 입지

7) 李樹建, 1984, p. 148

8) 前掲書, 李樹建, 1984, p. 24

9) 鄉案이란 각 지방마다 작성된 양반들의 명부다. 안동지방에서 재지 유력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그 명부를 만든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478년에 만들어진 「友鄉契軸」이다. 여기에 13명이 참가하였는데, 권벌의 조부인 권근과 그 형 권개의 장남인 권숙형이 가담하고 있었다. (富島博史, 1996, p. 171-172)

10) 16세기부터 在地士族의 지방확산에 따라 사족의 새로운 卜居地가 개척되어갔다. 연구 대상인 權穰이 安東府의 越境地인 奈城縣과 春陽縣에서, 金璣이 寧海府의 屬縣인 靑紀縣에서, 李繼陽家門이 禮安의 溫惠와 土溪에서, 李涵家門이 寧海의 屬縣인 英陽에서, 기타 士族이 청송, 봉화, 영주, 풍기일대에서 터전을 잡고 주위에 새로운 농장을 개간, 확대해 나갔다. (慶尙北道史, 1983, p. 765)

11) 중종 시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士林派의 급진적 개혁작업이 실패로 돌아가, 그 사람파들에 대한 숙청사건을 기묘사화라 한다. 즉, 퇴계 이전에는 선비들이 다투어 조정에 서기를 힘썼으나, 퇴계 이후에는 그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徵召에도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을 도리어 명예로 생각하는 소극적 士風이 생겼다. (金允濟 외 4인, 1997, p. 17)

12) 前掲書, 李樹建, 1997, p. 56

에 陽基를,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陽宅¹³⁾을 써서, 요즈음 터를 다루는 입지계획이나 단지 혹은 택지계획을 하였다. 즉 음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吉한 땅에 집을 조영한다면 저절로 행운을 입고 입신출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이에 반하여 凶地에 주택을 짓는다면 바로 災害疾病의 불행한 운명에 지배되고 드디어 流離絶滅의 역운에 빠진다고 생각하였다.¹⁴⁾

그러면 그들이 棲息이라고 생각한 吉地란 천지의 精氣가 모였다가 생기를 발하는 곳이며, 風光明媚해 賞歎해 마지 않을 만한 形勝의 땅이며, 靈草異獸가 나타나는 곳이며, 생활의 발달신장을 축복할 만한 땅을 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양택¹⁵⁾에서는 음택에서 흔히 말하는 생기를 탄다는 관념보다는 山下形勢의 類形類象, 즉 형국론에 의한 길지가 인생에 더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類形風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양기는 묘지처럼 땅속에 만드는 음택과 달라서 그 거주를 지상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땅속에 매장해 직접 생기를 탈수 있는 묘지보다는 생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양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그 유형을 바라보고 접촉하기 때문에 類形의 영향에 힘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풍수는 그 선정이 소규모이고 또 주로 그 표면적인 象徵에 의해서 길흉의 판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택이나 집단양기에서처럼 풍수지식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상식적인 판단¹⁶⁾에서 이루어졌다. 즉 발전적인 느낌이 있는 형세의 땅이 길지이다.¹⁷⁾

이러한 양기에 대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체

계화를 이룩한 인문지리서로 거론되는 實學者 이중환의 택리지 卜居總論에 의하면, 주거의 입지조건으로 地理·生利·人心·山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水口·들의 形勢·산의 모양·흙의 빛깔·朝山과 朝水의 여섯가지를 지리조건으로 가장 중요시하였고, 또한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도 생활의 방도를 세우는 治生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地理를 가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리는 물과 땅이 아울러 탁 트인 곳을 최고로 삼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곧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넓적하면서도 긴 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넓적하면 財利가 생산될 수 있고, 四神砂의 형태로 생긴 곳이 가장 좋은 터로 긴속하면 재리가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陽居는 다만 집터의 판국이 평탄하고 좌우가 긴박하지 아니하며, 明堂이 넓고 앞이 트였으며, 흙은 기름지고 물맛은 감미로워야 한다고 하였다.

3. 山水의 脈으로 본 立地

西谷마을은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1리 즉, 봉화읍으로부터 1,6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차량으로는 울진으로 가는 국도 36호선에서 靑溪橋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도보로는 지방도 915호선을 통해 三溪書院을 거쳐 가계천과 내성천이 합수되는 곳에 설치된 三溪橋 밑으로 가계천을 따라 진입하면 靑霞洞天과 石泉精舍를 거쳐 진입할 수 있다. 마을일대를 예전에는 吐谷部曲이라 했는

13) 집터를 살피는 陽宅論은 대체로 形局論·方位論·命數論의 세 가지로 논의된다. 형국론은 풍수지리에 뿌리를 두는 것이므로 주로 五行論에 따라 풀이 되며, 방위론과 명수론은 거의 周易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중들이 신봉했던 양택론은 주로 방위론에 치중되는데, 양택의 길흉은 무엇보다도 집의 座位·向位·方位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생각이다. 집이 무엇을 등지고 앉았는가하는 座位와 어디를 향해 바라보는가 하는 向位, 그리고 집이 자리한 지구상의 위도로서 方位가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특히 어떤 방에 대한 집 중심에서의 방위는 그 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길흉화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이다. (再引用, 李夢日, 1991, p. 150)

14) 村山智順, 1990, p. 657

15) 陽基는 陰宅과 달라서 그 거주를 지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 매장해 직접 生氣를 탈수 있는 묘지보다는 생기에 대해서 그리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양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그 類形을 바라보고 접촉하기 때문에 類形의 영향에 힘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住宅風水는 그 선정이 소규모이고 또 주로 그 표면적인 象徵에 의해서 길흉의 판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陰宅이나 集團陽基에서처럼 풍수적 지식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16) 상식적 판단이란 美를 미로 느끼고, 醜를 추로 보는 일반적 견지에서 길흉판단을 말한다. 많은 주택지의 선정은 앞으로 성해지려는 땅, 성한 기운이 상승하려고 하는 기세가 있는 땅이다.

17) 前掲書, 村山智順, 1990, p. 658-659

18) 本 退串部曲 高麗 忠惠王時以鄉人 宦者 姜金剛入 元有侍衛之 勞故 改令 名陞爲縣, (永嘉誌, 權紀, 1608, 卷之一 奈城縣 沿革)

데, 고려때 退串部曲¹⁸⁾이 奈城縣으로 승격되면서 편입된 마을로써 安東 權씨 북야공파의 시조인 沖齊 權穰(1478-1548년)이 남양 흥씨터에 기묘사화 후 道溪村¹⁹⁾으로부터 옮겨와 마을을 잡았던 곳으로 (1520년)²⁰⁾, 그의 후손 안동 권씨들이 살고 있는 동족마을로, 닭실마을(酉谷)로 불리어 오고 있는 한국의 傳統同族마을이다.

마을의 地勢는 白頭大幹의 太白山에서 발원한 한 지맥이 白屏山에서 文殊山으로 뻗어나와 동쪽가지가 흘러 葛坊山이 되었고, 그 갈방산이 남쪽으로 맥을 다해 봉화의 嶺山인 金輪峰²⁴⁾이 되었다. 그 지맥이 서쪽으로 향하면서 점점 낮은 형태로 변해 영주에서 태백으로 가는 철도에 의해 비티재가 갈라지다가 다시 솟아 유곡마을 앞에 가로 뻗어서 南山이 되어 黃土岡에 와서 그쳐 案山이 되었다. 문수산 중턱에서 남쪽으로 달려와 松生洞이 되어 토일마을을 이루고, 다시 내려와 생긴 봉우리가 白雪嶺(280m), 重九臺(250m)가 되어 마을의 뒷산으로 主山이 되었다. 또한 금륜봉에서 서쪽으로 꺾어 북쪽으로 흘러 沙金洞을 지나 酉谷의 동남방에 이르러 우뚝하게 높은 봉우리가 左靑龍인 玉笛峰(321m)이 되었다. 문수산에서 갈방산을 지나 동쪽으로 흐르던 또 하나의 지맥에 齋室과 묘가 있는 계곡골이 되고, 더 흘러 마을의 우백호이면서 삼계서원의 주산이 된다. 이 그 백설령을 背山하여 可居地를 정하였으며, 그 주산과 안산사이에 경작지가 120m정도 펼쳐지며, 안산의 맥이 다하는 지점에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석천골에서 마을 수구를 이룬다. 또 하나의 백두대간 지맥이 鳳凰山으로부터 남쪽으로 鷹坊山을 이루고, 그 곳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방향으로 흘러 삼계서원의 안산으로 세 개의 봉우리를 하고 있다. 물은 文殊山에서 시작되어 文溪라 지칭되는데 우백호와 주산사이의 골에 의해 형성된 한 하천이 東幕川이 되어 흐르고, 또 하나의 골이 주산과 좌청룡에 의해 가계천이 마을 앞에서 앞거랑(新灘川)이 되었다가 가계천이 흐르는 석천골에서 서쪽 동막천과 합쳐 마을의 수구

를 이루고, 다시 봉황산과 문수산의 지맥의 유역에 의해 생긴 乃城川이 서원 앞에서 가계천과 합류하여 洛東江의 支流가 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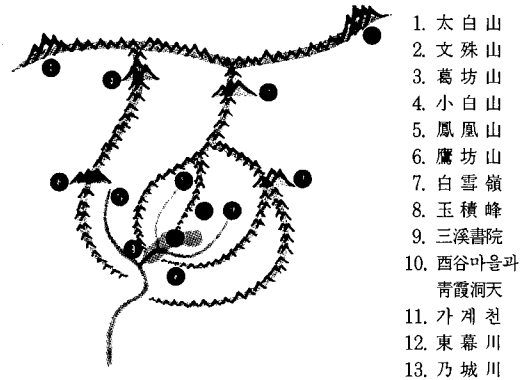


그림 2. 풍수체제로 본 닭실마을의 개념도

4. 山水景觀으로 본 形勝

酉谷마을의 입지를 살펴보면 현재는 일제시대부터 마을사람들도 꺼렸던 비티재를 뚫어 조성된 도로와 철도에 의해 靑溪橋로 출입하지만, 地理的인 體系와 이 마을의 風水的으로 좋은 입지중에 하나라는 점을 연구자가 고려해 볼 때 마을의 원래 주출입구는 三溪書院이 있는 곳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출입의 과정에 따라 산수의 경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마을의 形勝은 傳해져 오는 玉峰落照, 酉館朝輝, 靑岩荷池, 松岩秋月, 永崖杙葉, 靑窟桃花, 靑岩薯兩와 石泉瀑布로 酉谷八景을 통해 알수 있는데, 三溪書院에서 가계천으로 들어와서 石泉精舍의 洞門역할을 하는 靑霞洞天, 즉 武陵桃源의 장소로 그리고 隱逸思想에 의한 삶의 장소와 마을과 墓塚까지 시계가 닿지않는 文殊山의 지리체계에 의한 전체적인 山水形勝의 맥을 갖는 酉谷마을의 넓은 領域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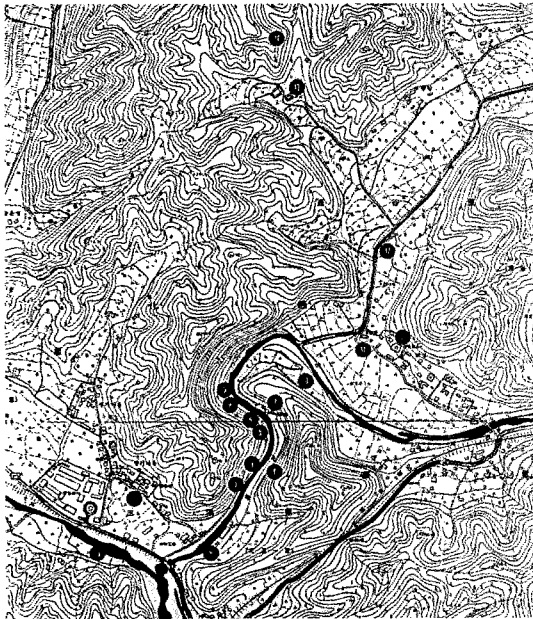
전체적인 유곡마을을 볼 때 연구자는 크게 洞門,

19) 현 北後面 道村洞

20) ... 당시에 선생은 세상일을 잊고 산속에 들어가 살 뜻이 있었는데 유곡은 산도 깊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선부인 坡平 尹氏의 묘소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자리로 선정했다...., (충계선생문집, 1982, p. 84)

21)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5권, 1986, p. 517

洞天과 마을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지만, 분석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을의 출입적인 성격을 갖는 삼계서원과 동문영역을 제1국으로, 동천으로 들어가서 精舍까지를 그리고 정사지역을 제2, 3국으로 보았으며,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이 마을의 조산이 되는 문수산이 인지되고 祭儀空間이 조성된 지역을 제4국으로 보았으며, 마을과 재실공간과 묘가 있는, 즉 인간의 일상 삶이 있는 공간을 제5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그림 3.)



- 1. 三溪書院 2. 靑霞洞天 3. 寫字石 4. 靑霞窟
- 5. 白石梁 6. 仙肺巖 7. 石泉精舍 8. 砥柱巖
- 9. 飛龍暴 10. 城隍堂 11. 靑巖亭 12. 酉谷宗宅
- 13. 齋室 14. 墓 15. 乃城川 16. 가계천
- 17. 東幕川

그림 3. 酉谷마을의 形勝 위치도

4-1. 三溪書院 形勝

봉화군 삼계리 생기마을에 위치하며, 忠定公 충재 권벌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儒林에서 선조 22년 (1589년)²²⁾에 창설되었다가 고종 8년(1871년)에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폐되었다가 1960년에 복원되었다. 서원은 달실마을의 우백호를 주산으로 하고,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또 하나의 지맥이 鳳凰山에서 鷹坊山으로 흘러와 맺힌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을 안산으로 하여 長坐坤向²³⁾으로 앉았으며, 그 곳에 霽月臺²⁴⁾을 조영하였다. 서원의 명칭은 마을에서 수구를 이루었던 동막천과 가계천 그리고 서원 앞을 흐르는 내성천이 합쳐 세 개의 하천이 흘러 모이는 곳에 위치하여 삼계서원으로 불렸다(그림 4). 삼계서원 앞에 청하동천에서 흘러나오는 가계천과 내성천이 합수되는 부분, 즉 현재 三溪橋가 설치된 부분이 이 마을의 전체적인 水口이며, 이 곳에 雲影橋를 설치하여 예전에 내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영역을 제1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 다리 동쪽 바위 위에 이 유곡마을의 洞門 역할을 하는 돌무리가 있는 위쪽에 風詠臺를 설치한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5).

三溪書院은 울타리 주변으로 은행나무가 식재되었으며, 현재 새로 조성한 觀物樓아래 喚惺門²⁵⁾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었으며, 講堂인 精一堂을 북쪽에 두



그림 4. 三溪書院

22) 前掲書, 김운재외 4인, 1997, p. 139

23) 權紀, 1991, p. 281

24) 酉谷마을의 안산인 남산에 光風臺를, 三溪書院의 안산에 霽月臺를 조성한 것은 中國 宋시대의 유학자인 周敦 의 人品을 평한 黃庭堅의 글에 ... 胸懷灑落 如光風霽月... 이라는 글에서 유학자들의 심성을 나타내도록 조영한 것이다. (황건, 1990, p. 228-230)

25)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친다는 뜻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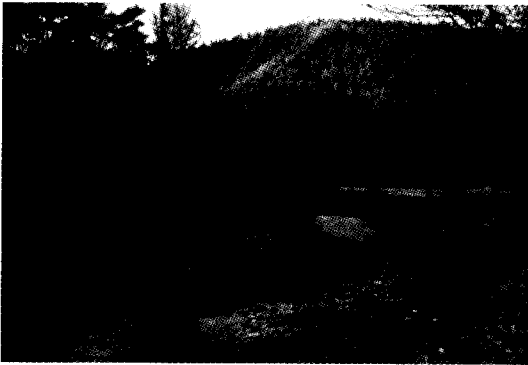


그림 5. 風詠臺·齋月臺와 雲影橋

고, 그 아래 東齊인 毋不敬齊와 西齊인 思無邪齊를 안치시켰다. 祠堂인 忠定公祠는 관물루에서 우측 뒤편에 위치시켰으며, 특이한 것은 고정된 출입계단이 아니라 이동식 목재계단에 의하여 출입하도록 조성되었다.

4-2. 靑霞洞天的 形勝

靑霞洞天的 形勝지역은 이 마을의 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문수산이 멀리 인지될 수 있는 석천골의 수구가 되는 동막천과 가계천이 만나는 지역으로부터 石泉精舍를 포함하여 봉화읍 삼계리 생기마을에 있는 三溪書院이 있는 가계천과 내성천이 합수되는 800-900m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景勝地를 이루고 있다.

洞天이란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장소란 의미를 갖는 곳으로 가계천과 내성천이 합강이 되는 동쪽 높은 곳에 風詠臺와 함께, 하천에 흩어진 여러 바위와 함께 이 마을의 洞門에서 가계천을 따라 시간적으로 인지되는 끝나는 지점에 양쪽의 암벽산에 의해 하나의 局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전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져 이 마을의 출입구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지점에 도달되면 양쪽으로 또 하나의 입구적인 성격을 주는 바위 벽을 두른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神仙이 살았을 곳과 같은 그리고 酉谷八景의 하나인 靑霞桃花라고 읊은 것과 마

찬가지로 하나의 武陵桃源으로 들어가는 느낌, 또 隱逸處士가 기거했음을 느끼게 하는 지점의 왼쪽 바위 벽에 초서로 靑霞洞天이라고 새겨진 글자를 볼 수 있다(그림 6). 그 곳으로부터 또 하나의 시점이 끝나는 곳에 석천정사가 보인다. 동천의 입구로부터 하천을 따라 오르면 종이가 아닌 돌에 다 글씨연습을 했다는 寫字石이라는 넓은 바위가 나타나며, 그 바위에 앉아 서쪽에는 느티나무언덕(栢臺)이 있고, 다시 동쪽을 바라보면 신선이 기거했을 것과 같은 靑霞窟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훼손되어 현재는 찾을 수가 없다. 이곳에 앉아있으면, 또 하나의 局인 小宇宙를 이룸을 알 수 있는데 洞天 洞門을 통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 할 수 있으며, 또 석천정사가 보여 그 정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인지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

연구자의 관찰로는 다섯 개의 局으로 조성된 지역에 중심이 되는 세 번째 지역에 石泉精舍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7). 精舍란 佛敎에서는 精練行者의 屋舍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성리학과 연유된 精舍는 修養하는 곳이며, 또 학문을 가르치려고 배운집²⁶⁾으로 隱棲處士나 儒學者들이 深山溪谷에 설치해 놓은 건물을 일컫는다. 石泉精舍 터는 처음 충재선생이 1526년에 돌을 쌓아 臺를 만든 곳에, 만아들 靑巖 權東輔가 臺위에 석천정사라는 현판을 걸고 그 옆에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石泉亭과 함께 세웠으나 퇴락하여, 그 후 1710년 충재선생 5세손인 荷塘公과 蒼雪公이 여섯 칸 규모로 중건을 계기로 확장하여 오늘날의 모습



그림 6. 靑霞洞天的 陰刻

26) 닭실마을이 배출한 대표적인 학자는 충재선생의 5대 후손들인 斗字 항렬에서 斗寅(1643-1719), 斗經(1654-1726), 斗紀(1659-1722)에 절정을 이루어 28대를 배출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도 萬(1688-), 正枕(1710-1767)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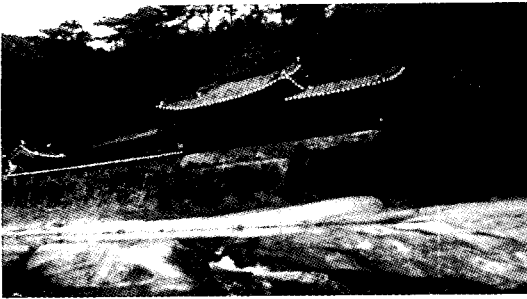


그림 7. 白石梁과 石泉精舍



그림 9. 砥柱巖과 飛龍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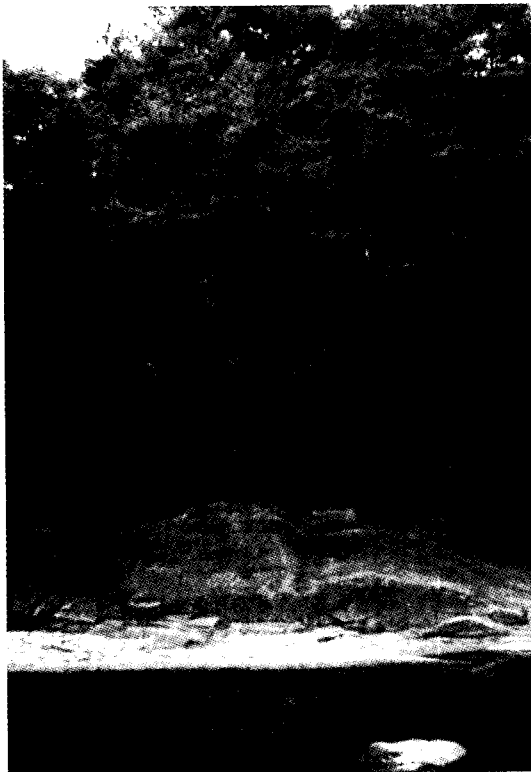


그림 8. 水明樓에서 본 仙肺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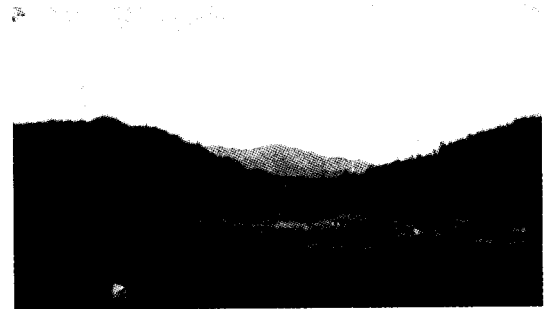


그림 10. 酉谷宗宅 넘어 文殊山

으로 중앙 네 칸을 水明樓라하여 현관하였으며, 그 옆에 山水寮라 하는 僧寮를 축조하였으며, 마당에는 石井이라는 샘물을 식수로 이용하게 하였다. 寫子石에서 하천 건너편 높은 곳에 위치한 정사로 가기 위

해서는 정사아래에 시냇물이 흐르는 반석이 놓여 있는데, 갈수기에는 능히 다리를 삼아 정사로 접근할 수 있는 넓은 바위를 白石梁으로 불리워 졌다. 또 수명루 마루에서 문을 통해 정사의 안산격이 되는 둔덕이 마치 이 지역 仙人의 肺 모양으로 층층이 암석으로 형성된 모양을 仙肺巖으로 부르기도 하였다(그림 8). 수명루에서 북쪽으로 시점이 끝나는 지점에는 선비의 지조를 보여주는 砥柱巖²⁷⁾이 서있으며, 그 곳에서 북쪽으로 선비가 道를 닦고 治國을 위해 天下로 나가거나 동천에서 眞人이 되어 승천하는 것과 같은 飛龍瀑이 있다(그림 9).

그 곳을 지나면 第 4 局으로 소란스러웠던 폭포의 물 흐름이 갑자기 고요해져 자연의 몰아지경으로 들어가는 듯한 松林만이 우거진 넓은 지역이 나타난다.

27) 중국 하남성 심주에서 동쪽으로 사십리되는 황하의 중류에 있는 柱狀의 돌로서, 위가 판판하여 솟돌 같으며 激流속에서 우뚝 솟아 꿈작도 하지 않으므로, 亂世에 처하여 毅然히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비유로 쓰임. (漢韓大字典, 1988, p.35)

이곳을 벗어나면 마을의 주산인 백설령이 보이고, 또 다시 문수산이 보이면서 第5局인 인간의 삶의 터전인 마을로 들어선다(그림 10). 석촌골의 시작지점이며, 현재는 宗宅이 보이는 안산 끝자락에 토속신앙에 흔적으로 보이는 祭儀空間인 城隍堂 터만이 남아있다.

4-3. 酉谷宗宅을 중심으로 한 形勝

닭실마을을 풍수상으로 본 지리적 형국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인 金鷄抱卵形²⁸⁾이다. 마을을 형성하는 안산인 玉積峰이 수탉(雄鷄)이 되고, 주산인 白雪嶺은 암탉(雌鷄)에 해당하여 마을이 자리한 땅을 동물인 닭에 상징화시키고 있다. 또한 마을을 둘러싸는 지리적인 자연환경을 땅의 흐름으로 볼 때 마을 북쪽에 위치하여 主山에 해당되는 白雪嶺²⁹⁾ 및 重九臺가 마치 닭이 날개를 벌려 마을을 감싸고, 案山인 玉笛峰³⁰⁾과 光風臺가 위치한 남산이 마을을 향하여 길게 펼쳐 마을 앞을 외부로부터 가리어 하나의 영역을 나타내주는 것이 마치 암탉과 수탉이 거주지와 경작지인 알(卵)을 감싸고 있는 둥우리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이루어진 마을공간은 形局인 내부에서는 포근하고, 외부로부터 자연적으로 보호됨을 느껴 독자적인 동족마을을 형성하게 하였다(그림 11).

이와 같이 닭실마을은 지형을 類形化³¹⁾하여 상징동물인 닭에 대하여 마을공간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옛적부터 식수를 위해 우물을 파는 것을 꺼려오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닭의 몸통에 쇠망치질을 하는 행위로 닭의 생존과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또 비티재에 조성된 도로나 철길이 생기는 것도 꺼리어 왔는데 그것은 산의 氣運을 끊는 행위,

즉 수탉이 허리를 잘리는 행위로 생각하여 유형화된 상징동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자연에 대항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자연에 적응하며 융화하려고 노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宗宅은 행랑채의 솥을 대문을 들어서면 자귀나무가 심겨진 사랑마당을 지나 사랑채와 안채가 「口」자 형태로 조성된 것을 보여준다. 북동쪽으로 靑巖亭 청지가 기거하였던 주택들을 없애고, 그 빈자리에 1991년에 총재선생을 기리기 위한 유물관이 들어서 과거의 모습은 변하였다. 유물관의 북쪽으로는 사당과 제청이 있는데, 그 곳에서 서쪽으로 올라타 친 작은 문을 지나쳐 들어가면 寒栖堂이 나오고, 다시 작은 문을 들어가면 靑巖亭이 나온다. 寒栖堂은 총재선생의 거처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沖齋라는 현판이 걸려있으며, 두 칸 크기의 구들방과 반침, 한 칸의 마루방으로 구성되어있다. 靑巖亭은 祥瑞로움을 나타내는 장수영물인 거북이의 형태를 갖춘 龜形(卵形)의 암반 위에 지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龜岩亭이라고 불리워



그림 11. 白雪嶺 밑의 酉谷宗宅

28) 金鷄는 天鷄인데, 이 천계가 한 밤중에 우선 새벽을 알린 후에 지상의 닭이 따라서 온다. 고로 이 금계형국은 상吉이며, 또한 닭은 한번 알을 품으면 이십여 마리의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형국도 역시 大吉. 따라서 이 지형의 소용은 위대한 호걸 및 대대로 많은 자손을 번식한다. (前掲書, 村山智順, 1990, P. 215)

29) 백설령은 마치 닭의 벼슬모양처럼 산꼭대기가 허영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며, 닭실마을의 금계포란형의 형국에서는 암탉의 머리에 해당되며, 石泉誌에는 벼슬재라고 불렀다.

30) 玉笛峰은 마을 동남쪽에 위치하며, 文筆峰(星尖卓立한 유형으로 문장이 科第하고 名譽가 방출된다고 함)의 산 모양을 가지고 마을에 있어 수호산이 되며, 또 金鷄抱卵形의 형국에서는 수탉의 머리가 된다.

31) 풍수의 본질은 천지의 생기를 땅을 통해 받아 인생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음택은 땅속을 흘러 모이는 생기를 직접 받는데 반해서, 양기는 생기있는 땅 위에 주택을 지어서 간접적으로 생기를 향유하는 것이다. 양기는 음택보다 지형물의 형세, 즉 類形에 중대한 의의를 인정한다. 양기는 複類形으로 국·혈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의 여러 砂를 복합·종합한 것으로 成局의 형상여하에 따라 形이라 불리어 진다. 풍수는 생기가 모이는 국혈과 그 주변형세에 중점을 두고, 그 형세의 善惡順逆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음택은 직접 땅 속의 生氣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양기는 형세의 영향을 중시한다. (前掲書, 손산지순, 1990, p. 530-531)

지는데, 지반이 卵形이므로 인위적으로 池塘도 洑를 막아 난형으로 조영하여 물이 고이게 하였다. 청암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정자³²⁾와 정면 4칸, 측면 1칸인 맞배지붕의 近思齋가 「T」자형으로 연결된 건축물이다. 물은 문수산아래 우리실(우곡)마을에서 발원하여 누운들·마작을 거쳐 토곡마을 앞 동막천에서 물을 분리시켜 마을안의 정자보를 통하여 청암정에 들어오게 된다. 청암지에는 물이 들어오는 입구와 출구를 함께 뚝으로써, 연못내 수위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었고, 가운데 섬을 만들어서 늘 물이 흐르도록 물위에는 정자가 있는 구암바위와 돌다리로 연결시켰으며, 가운데 섬에는 왕버들, 단풍나무, 회화나무 등이 심겨졌고 池岸에는 향나무, 왕버들, 굴참나무, 은행나무와 앵도나무 등이 심어져 있어 더욱 자연과 동화되는 정자의 풍취를 더하게 하였다. 酉谷 八景의 하나인 靑巖荷池라는 글로보아 물에는 주염계의 愛蓮說에 의한 君子를 상징하는 연꽃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백설령에서 맥이 흐름을 정자까지 끌어오기 위해 외부 북쪽의 주거지 경계를 따라 裨補로써 造山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마을의 정기를 모이게 하기 위하여 못을 파서 물이 모이게 하는 것은 풍수사상에서 기인하며, 이때 물이 움직이는 것을 피하고 머물러 펼쳐지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겼다.³³⁾ 흐르는 물은 곧 세월의 흐름과 비유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수사상과 더불어 조상들의 靈物에 대한 신앙적인 관념과 직결되는 神仙思想이 합하여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연속에서 이탈 초현실적인 환상의 세계를 동경한데서 이 연못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닭실마을은 현재 문중의 종손인 북야공파의 종가(권정우씨의집)가 가장 오른쪽에 배치되고, 집 주위에는 건물을 두지 않았다. 동쪽³⁴⁾이 分派되면서 집의 배치는 마을 오른쪽에서 왼쪽 즉 시계방향으로 수평적인 흐름을 갖고, 각 파 선대 조상들의 집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였다. 그 후손들이 사는 집은 점차 낮은 지대로 내려오면서 집터를 잡아오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마을 내에서 후손들을 수용해온 변화는 배

산입수의 형태인 백설령 밑에서 시작하여, 옥적봉 밑 큰골·작은골 그리고 광풍대 아래로 시계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계보가 갈리면서 좋은 지점부터 집터가 마련되었으며, 점차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주거지의 성장 또한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집터의 지형이 갖는 수평·수직적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거지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닭실마을은 입향하여 세거지의 성격을 갖는 마을로, 마을 뒤의 중구대 밑에 송암정 모퉁이쪽의 토곡·사곡마을과 서쪽거랑쪽으로 중말·구형동의 마을로 연결되어 조성되어 있다. 마을은 처음 마을 외부와의 교통과 물자구입이 편리한 곳을 마을자리로 선택하였다가, 점차 산기슭 안쪽 경작지가 펼쳐지는 곳으로 주거지가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齋室과 墓

마을공간에서 墓자리가 가지는 상징적인 정신적 흐름은 산과 물에 의한 마을을 毋空間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물>서낭당>종가>재실>묘지>산>하늘의 마을지형의 수직관계를 연결시키는 向天性 흐름의 공간적 의미를 강하게 하는 공간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종묘는 시조나 입향조등 조상들의 묘자리가 위치하는 부근으로 비교적 마을과 멀리 떨어진 마을 뒤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 이 종묘에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時祭日³⁵⁾을 정하여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묘와 종묘관리를 위하여 종묘부근 경작지를 이용하여 경비를 충당케한다. 닭실마을의 종묘는 追遠齋로써, 마을 북서쪽 총채선생의 묘소가 있는 재궁골에 있다. 이곳에는 높은 기단위에 대청마루와 방이 있으며, 음식물과 제기그릇을 보관하는 2층루각인 東上室이 있다. 그리고 추원제 위에는 총채선생신도비명 비각이 총채선생과 부인 최씨, 부모인 권사빈과 파평 윤씨, 아들 동보와 밀양 박씨의 묘로 올라가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32) 靑巖亭의 현판과 허미수가 쓴 靑巖水石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33) ...謂水外水也... 屈曲 悠揚內朝來 不可一直如射... (임원십육지, 서유구, 서울대학교서간학회, 1966, p. 447)

34) 동쪽집단으로서 안동 권씨는 열네 개 파로 나뉘어 있다.

35) 닭실마을은 한식과 음력 10월10일로 일년에 두번

5. 結論

이 연구 대상지는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이증환의 택리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세로 보아 바닷가보다는 강가, 강가보다는 시냇가에 사는 것이 좋으며, 또 시냇가에 살 때는 嶺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이 좋다³⁶⁾고 하였다. 그 중 연구자가 연구한 酉谷마을도 嶺南地方에서 卜居하기에 좋은 마을중에 하나이다. 또 可居地가 있으면 한나절 거리에 산수를 벗하는 장소가 있다면 좋은 마을의 입지조건이라 하였는데, 이 닭실마을은 서원〈석천정사〉마을〈재실〉묘까지 의미적으로 백두대간의 지맥인 문수산을 주산으로 한 하나의 人生行路를 조성한 것과 지형적으로 보면 서원에서 묘까지 向天的인 흐름을 볼 수 있다. 또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구축물들, 예를 들면 궁궐은 前殿後園과 같이 後庭을 가졌는데 이 마을은 前園後宅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 큰 특성이라 하겠다.

이 마을은 漢字를 풀어 닭실마을로 불리워지며, 그 이유는 닭중에서도 大吉에 해당하는 天鷄라는 상징적인 동물을 風水의 形局論으로 해석하여, 닭이 병아리를 품는 등우리와 같은 장소를 立地로 정하고 있다. 마을은 풍수상 陰宅에서 흔히 말하는 生氣를 탄다는 관념보다는 山下形勢의 類形類象이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類形 風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天鷄는 서식하는 마을 입지의 형태로, 또 청암정은 龜巖 위에 놓여진 것은 우리의 토착적인 瑞物信仰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靑霞洞天的 조성이나 지리적인 산수에 설치된 造營物은 神仙思想이나 유학적인 隱逸思想에 의하여 설치하여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였다. 이곳은 하나의 무릉도원이며 仙人들이 寄居하는 理想郷이다. 유곡마을의 안산에 설치된 光風臺와 삼계서원의 안산에 설치한 霽月臺는 한 유학자의 인품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연구자가 다섯 마디로 분석해본 가계천의 중심이 되는 세 번째 局에 석천정사의 조영이나, 또 세 번째

마디의 砥柱巖이 보여주는 유학자로서의 志操 그리고 道를 득한 후에 飛龍暴이라는 상징적인 동물에 의해 승천하여 修身齊家하여 혼돈된 사회 속에서 민중을 濟度하겠다는 조영자의 마음을 자연의 한 구비마다 하나의 小宇宙로서 독립적인 局面과 공간질서의 흐름에 따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닭실마을의 서식 형태는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 이외에도 구매력을 지닌 지배계급은 힘들이지 않고 피지배계급인 하인들을 통하여 식량생산 및 물자들의 공급이 어렵지 않은 지역부터 자리를 잡아왔다. 산골짜기에서는 높은 지대를 주거지로 선택하고, 마을 거주 성격이 안정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일 때는 낮은 지대로 내려와 가능한 넓은 들을 갖게 하고, 동시에 식량생산이 가능한 경작지 확보가 쉬운 곳으로 마을이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대에 걸쳐 동일한 集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世居地를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저명한 관료와 학자를 조상으로 갖추는 것뿐 만 아니라 한 장소에 계속 거주하며 양반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인 權巖은 權士彬의 次子로서 酉谷을 발판으로 안동부의 越境地인 奈城·春陽·皆丹 등지에 財地의 기반³⁷⁾을 확대해 나간데 반하여, 그의 형인 權巖은 道村에서 妻鄉인 醴泉郡 渚谷里에 이주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醴泉·榮川·豊基일대에 강력한 棲息 기반을 구축하였다.³⁸⁾

引用文獻

1. 강선중(1984)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 김광언(1988) 韓國의 住居民俗誌, 서울, 민음사.
3. 金允濟의 4인(1997) 安東의 선비文化, 아세아문화사.
4. 김홍곤 등(1997) 한국 宗家 建築의 解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5):155-165.
5.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1983) 慶尙北道史.
6. 權紀(1991) 國譯 永嘉誌, 안동군.
7. 권숙(1984) 석천지, 영인본.

36) 前掲書, 李重煥, 1987, p. 252

37) 權士彬의 아버지인 權瓚은 鄭若(청주인, 刑曹都官)의 사위였으며, 權士彬은 재지사족이었지만 皇甫仁의 外孫인 坡平 윤씨로 妻邊에 의해 많은 기반을 닦았으며, 권벌 자신도 右贊成을 지냈으므로 왕에게 하사 받은 노비나 토지가 있었을 뿐 만 아니라 妻邊과 父邊의 덕으로 가산이 충분하였다. (前掲書, 李樹健, 1997, p. 121-135)

38) 前掲書, 李樹健, 1997, p. 132

8. 宮島博史(1996) 양반 -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 노영구
譯, 서울, 도서출판 강.
9. 민성기(1988) 조선 농업사연구, 서울, 일조각.
10. 신증 동국여지승람(1986) 고전국역총서 46권 - 55권, 민족
문화추진위원회.
11. 서유구(1966) 임원십육지, 서울대 고서간행회.
12. 이민홍(1987) 사립파문학의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3. 李夢日(1991) 現代韓國風水思想史, 서울, 명보출판사.
14. 이수건(1984) 한국 중세 사회사 연구, 서울, 일조각.
15. 이수건(1997)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서울, 일조각.
16. 이원교(1993) 傳統建築의 配置에 대한 地理體系的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7. 李重煥(1987) 擇里志, 李翼成 譯, 서울, 乙酉文化史.
18. 이학동과 최중현(1992) 전통주거지 조영에서 나타난 안동지
방 동쪽 반촌마을권의 형성과정과 배경요인, 조경학회지
19(4): 58-79.
19. 이태진(1989) 조선 유교 사회사론, 서울, 지식산업사.
20. 宋志香(1983) 安東鄉土誌 下卷, 大星文化社.
21. 송준호(1987) 조선 사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22. 전봉희(1992)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3. 한필원(1991) 농촌 동족마을의 공간 구조의 특성과 변화연
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4. 洪萬選(1985) 國譯 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5. 홍승재 등(1990) 조선시대 건축과 禮制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6(1).
26. 황건(1990) 古文眞寶, 최인옥 역, 서울, 을유문화사.
27. 村山智順(1990) 조선의 풍수, 최길성 譯, 서울, 민음사.
28. 안동 권씨 충정공파 서울 종친회(1972) 충재선생문집.
29.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1988.
30. 안동군지.
31. 봉화군지.
32. 대동여지도.
33. Hough, Michael(1995) Cities and Natural Process,
Routledge Co.